

# 올 하반기 석탄·중유 발전소 가동 제한

### 내년 봄 미세먼지 최대 43% 감축

#### 백운규 장관, 당진화력 방문... 지자체와 대책 논의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내년까지 51기 발전소 설비 개선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 지사가 석탄과 중유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봄철에 미세먼지를 최대 4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지역기업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

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중유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 예정으로 전체 석탄 및 유류발전 68기 중 42기에 대해 80%로 출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최종 협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75%를 차지하는 황산화물 발생 억제를 위해 황함량이 적은 저유황탄 연료로 전환한

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체 61기 석탄발전소 중 올해 21기, 내년까지 총 30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비 개선을 추진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 부두에 육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사용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4대 배출 업종인 제철, 석유화학, 석유정제, 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감축 대책도 마련한다.

이들 업종의 질소산화물 생성 및 제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촉매와 연소 최적화 기술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별로 맞춤형 감축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계 미세먼지 감축 이행지원단을 운영해 산업현장의 공정 개선, 민간의 환경설비 투자 등도 지원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발전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노후석탄 분철 쇄다운과 조기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BHC 본사 식자재 원가 공개하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BHC치킨 가맹점 협의회원들이 설립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의 식자재 원가 공개와 납품단가 인하, 외국계 사모펀드 회수 자금내역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위메프, '공짜야근' 포괄임금제 첫 폐지

### 6월부터 포괄임금제 적용 폐지 "초과근무하면 수당 지급"

위메프가 주요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금지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예정돼 있는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

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사실상 '공짜야근'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일반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6월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위메프는 처음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위메프는 6월부터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적용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이후 쉼터 진행, 임직원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뉴시스

## 한국표준협회, 서비스 분야 KS인증 확대

한국표준협회는 올해부터 서비스 산업에 대한 KS인증 영역이 새롭게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확대 분야는 택배, 이사, 컨벤션, 시장 및 여론조사 서비스 총 4개 분야로서 소비자 보호 및 피해방지, 국가정책 등을 목적으로 선정됐다.

특히 택배 및 이사서비스의 경우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KS인증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고객과 사업자간 신뢰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표준협회는 오는 28일 관련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년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분야, 서비스 표준화, KS인증 제도 등을 설명하는 KS 서비스 인증

설명회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서비스 표준화 및 KS인증제도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KS인증제도는 한국산업표준(KS) 이상의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증제도로서 1962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에는 서비스 분야로 확대됐으며 콜센터, 시설행, 노인요양시설, 골프장 서비스 등 14개 분야, 106개 사업장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

## 관광객이 많이는 식품은?...中は홍삼·된김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은 소비자 국적별 판매량이 높은 식품을 23일 발표했다. 중국인들은 홍삼, 일본은 돌김, 동남아는 허니버터아몬드였다.

중국인들은 2016년에는 허니버터아몬드를 가장 선호했지만 올해는 '홍삼정'을 바꿨다. '김'도 '허니버터아몬드'를 앞섰다. 면세점 측은 중국에 부는 웰빙·고급화 트렌드를 배경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들은 김을 가장 많이 사 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와사비 맛, 불고기 맛 등 다양한 김 스낵 세트 구성품이

가장 많이 팔렸고 돌김은 크기별로 구매량이 달랐다.

첫 조사 대상이 된 동남아인들은 허니버터 아몬드를 가장 좋아했다. 이어 허니버터 견과류·홍삼·브라우니·바나나 우유 등 순이다.

한편 인천공항점은 오는 30일까지 BC카드 300달러, 600달러, 150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 1만원, 3만원, 8만원 선불 카드를 제공한다. 웨딩 고객 1000달러 이상 사용할 경우, 선불카드 5만원 추가 증정도 진행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청년병사 맞춤형 적금상품 출시

### 목돈마련... 최대 월 적립한도 40만원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청년병사가 복무를 하며 전역 후 학업·취업 대비 등을 위해 목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중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 및 산업 등 부문별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며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이 가장 시급한 만큼, 노후석탄 분철 쇄다운과 조기폐쇄 등 기존 대책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병사 급여인상 추이(병장 40만 6000원) 등을 감안해 기존 은행 상품별 월 적립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2개 은행까지 가입할 수 있어 최대 월 적립한도는 40만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은행연합회는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금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66개 기업이 '라돈 원료' 구입"

### 민중당 권철승 의원실 원안위 자료 공개 라돈원료... 3곳은 대진침대보다 많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원인 제품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업체가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곳은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모나자이트 판매 업체 A사는 ▲2013년 3265kg ▲2014년 9959kg ▲2015년 9292.5kg ▲2016년 7222kg ▲2017년 6359kg ▲2018년 4560kg 등 4년4개월간 66개 업체를 상대로 총 4만2657kg을 판매했다.

A사로부터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더 많은 양의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는 3곳이다. A사는 2014년부터 약 1만2000kg의 모나자이트를 구매했다. 이는 대진침대 제조사가 2013~2016년 사들인 모나자이트 총량(2960kg)보다 4배 많은 양이다.

A사는 '물, 공기, 헬스, 뷰티 분야'에 음이온·항균제 등 바이오세라믹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팔찌와 세탁볼 등을 판매하고 있다.

또 A사는 2013~2015년 해마다 540~2600kg씩 총 4180kg을, B사는 2013~2017년 해마다 200~1600kg씩 총 3720kg을 각각 A사로부터 사들였다.

그 밖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구매량이 적지만 연도에 따라 수백~1000kg씩 모나자이트를 사들인 업체가 추가로 18곳 더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권철승 의원은 "지금까지 관계당국이 제대로 수급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구매 업체에 대한 신속한 전수 조사와 정보공개로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파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li> <li>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li> <li>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li> <li>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li> <li>국가대표 코치 역임</li> <li>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li> <li>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경 취득</li> <li>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li> <li>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li> <li>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li> <li>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li> </ul>
--	---